



금속노조 2024년 쟁의행위 결의 파업 찬반투표 92.54% 가결 ... 10일 1차 총파업

공 고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에 의거하여 2024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 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재적인원	투표인원 (투표율)	찬성	반대	찬성률		결과
				투표대비	재적대비	
99,732	92,306 (92.8%)	85,421	6,748	92.54%	85.96%	가결

2024년 7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2024년 단체행동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나흘간 2024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대각선교섭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92,306명이 투표해 그중 85,421명(92.54%)이 찬성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7월 1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은 주야간 각 4시간 이상 파업을 집행한다. 또 노조는 이날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1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2024년 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개선 노사 대정부 요구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1천80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6월 18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용자 측이 열 차례 교섭에도 타임오프 개선, 최저임금,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요구 등에 제시안조차 내지 않았다. 노조는 불성실한 사측 탓에 더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교섭 결렬 이후 현재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상황. 임원 현장 순회 등을 통해 파업을 조직하고, 10일에 이은 18일 2차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편, 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이미 파업을 결의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원 대비 87.2% 찬성으로 파업의 결의를 모았다. 또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 현대차지부 역시 지난 24일 조합원 93.71%(투표 대비)가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정기선이 책임져라” HD현대 조선3사 공동투쟁 경고

5일 분당 HD현대 앞 결의대회 ... 공동교섭·하청노조 인정 촉구

HD현대 조선 3사 원하청 노동자들이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조선3사 공동교섭 및 하청노동자 교섭 책임자 정기선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책임회피를 규탄했다. 백 지부장은 HD현대 자본이 정기선 경영승계를 위해 회사를 쪼개고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았다며 “정기선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승계에만 빠져 조선소 현장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정기선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HD현대 조선 3사 노동자 공동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백 지부장은 정 부회장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면 조선 3사 원하청 노동자들이 뭉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HD현대 조선소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요구는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향상 ▲하청노조 활동 보장 및 탄압 중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이다.

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조선산업 초호황기에 지주사 HD현대로 수익이 몰리고 있는데, 배 짓는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HD현대삼호사측의 조합원 표적 해고와 노조 활동 방해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두 곳 하청지회 모두 정기선 부회장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 이병락 지회장은 “서진 하청노동자 해고, 하청노조 탄압 등 HD현대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는 실질적 사용자, 진짜 사장 정기선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D현대와 조선 3사 노동자 공동교섭 요구도 나왔다. HD현대 조선 3사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HD현대 자본에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황형수 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은 “사측이 그룹·지주사 눈치 보느라 수년째 해를 넘겨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며 “조선소 모든 결정권과 동력이 HD현대 정기선에게 집중된 탓에 공동교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형수 지회장은 “HD현대 조선 3사 공동투쟁으로 올해는 꼭 원하청 노동자들 함께 정기선과 교섭장에 마주 앉자”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들의 투쟁 결의를 환영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인 김병조 노조 부위원장은 HD현대의 조선 3사 노동자 갈라치기와 하청노동자 문제를 비판하며, HD현대 조선소 공동투쟁 지지 엄호를 약속했다.

